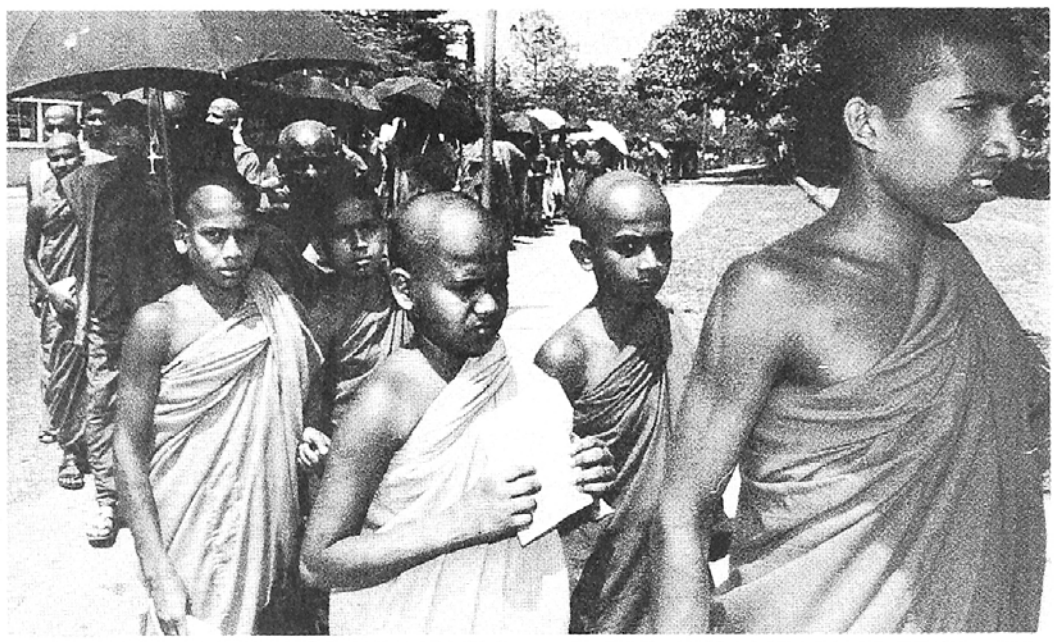
현대에 이르러 불교는 개인이 얻은 깨달음을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유지하려는 경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속에서 사부대중과 공유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후자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해답을 찾는 참여적인 불교 경향을 가리킨다. 19세기 이후 종교학을 통한 학술적인 접근으로 불교를 이해한 서양에서는 '불교윤리'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 동시대 참여불교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환경·여성·인권 등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동양에서의 참여경향은 '해체'와 '재구성', 즉 정치적 독립·승가 개혁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K. 크래프트 교수(미국 리하이大 종교학)는 "세계의 모든 문화와 융합해 나아가고 있는 불교의 참여적 성향이 동시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인류의 삶에 불교의 사회적 참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세계의 불교는 한 개인의 깨달음을 사회로 다시 회향하는 참여적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스리랑카 1천4백여명의 스님이 스리랑카의 정부가 종교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결의한 것에 대해 침묵시위로 맞서는 장면. 스리랑카는 불교와 힌두교의 분쟁을 통제하기 위해 법안을 결의했다.

'모두의 자각' 운동 인류행복 찾는다

식량은행·비폭력·지뢰추방등…정치·경제·사회적 불균형 조율

'참여불교' 각국의 움직임

태국 '현실에서의 수행'이란 모토를 내건 태국불교는 식량증대와 에이즈(AIDS) 퇴치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Turning Wheel(대법륜, 96 여름)에 따르면 수세기에 걸쳐 농경사회인 태국은 최근 8~10% GNP 성장을 매년 거듭하면서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갔다.

태국승가단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개발·보급시키는 기술정보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태국불교의 고질적인 정치적 종속과 승가의 현대적 교육 부재로 이 운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승가에서는 자성의 소리를 높이는 한편 재가불자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현실에서 수행'이란 모토를 내건 프라사키야 다마는 승가·재가의 연합회로 현재 태국 불교운동에 전환기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농민의 빈부차를 줄이고 농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식량은행' 운동과 에이즈 환자의 치료·장례에 헌신한 '불교간병인' 운동을 전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태국의 에이즈 환자는 급박한 사회적 현안으로 총 인구 1.6%에 해당하는 1만여명이 양성보균자로 알려졌다.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참여불교는 '비폭력 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리랑카는 신하라(Shinhala)와 타미르(Tamil) 두 종족으로 구성됐다. 신하라인은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불교도인 반면 20%에 불과한 타미르인은 힌두교도이다. 이로인해 두 종족간의 빈번한 마찰은 항상 유혈충돌로 발전해 스리랑카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살보다야 쉬라마다나'는 스리랑카의 승가단에서 유혈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초로 전개한 비폭력 운동. '살보다야'는 '모두의 자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쉬라마다나'는 한 사람의 생각과 노력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교육·경제·환경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꾀한 이 운동은 스리랑카를 분쟁없는 사회로 재구성하며 종족간의 정치·경제·사회적 불균형을 조율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7년 스리랑카에서는 재가불자가 주축이 되어 '인류평화공세'(People's Peace Offensive)란 단체가 구성돼 '진실과 비폭력'이란 모토를 내걸고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캄보디아·대만 캄보디아와 태국의 참여불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와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랜 내전을 겪은 캄보디아는 전역에 전쟁의 상흔으로 남아있는 지뢰를 제거해 황폐해진 국토의 안정을 되찾고 환경보호 등이 당면한 과제. 현재 캄보디아 승가단은 최고 원로인 마하고사난다 스님을 주축으로 범세계적인 '지뢰추방운동'을 전개하고 국내·외를 통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뉴스위크지의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묻혀 있는 지뢰는 약 80만~1백만개로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과 국경문제로 최근 경색국면을 맞이한 대만에서도 승가단이 앞장서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국외 불교계에 알리는 한편 정신적 연대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교교우회(FOB)가 대만의 불교평화운동에 적극 동조하고 있으며, 달라이라마 역시 대만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서구·아프리카 서구의 참여불교는 제3세계의 인권옹호와 불교윤리를 토대로한 '비폭력 운동'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질적으로 부족간의 분쟁이 극심한 아프리카는 서구의 참여불교의 장(場)이다.

자이레는 후투족과 투트시족 간의 유혈분쟁이 빈번히 일어났고 최근에는 후투족의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됐던 지역으로 잘 알려져있다.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은 최근 수천명이 수용된 르완다 난민 수용소에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칼루나센터와 국제조정교우회 등과 공동으로 르완다 난민에서 비폭력 정신을 교육 시키기 시작했다.

교육 내용은 르완다 난민이 불교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 대부분. 현재 이 교육은 난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불교평화협회 사절단은 앞으로 네덜란드에서 '비폭력 평화사절단'을 결성해 문화와 예술의 교감을 통해 비폭력운동을 더욱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구불교의 참여적 성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며 종교학계의 석학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세계 불교인구

우리나라 불자수는 일반적으로 1천만여명으로 꼽고 있다. 세계 불교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전세계 불교인구는 약 3억4천여명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인터넷 웹사이트 서방불교도교우회(http://www.fwbo.org/)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불교인구 산출이 가능한 90여개국을 중심으로 조사한 통계자료이다. 여기에서 미주·유럽 지역은 불교인구를 기타 종교인구로 분류하고 있어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불교 강세지역인 동아시아의 잠재적인 불교인구를 가산하지 않아 정확한 세계불교인구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브리태니커에서 정확한 불교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인도 4백만여명('91) 스리랑카 1천2십6만여명

3억 4천여명…미주·유럽·중국등 제외

잠재적 신도 포함 10억여명 추산

('90) 미얀마 3천7백5십만여명
('90) 태국 4천6백2십6만여명
('93) 라오스 2만5천7만여명
('91) 캄보디아 7천7백3십2만여명('90) 일본 8천6백8만여명
('91) 등의 7개국의 불교인구를 더하면 이미 3억여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럽지역과 중국등 공산지역의 근거자료는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현재 세계불교인구의 증가추세가 분명한 현실인점을 감안 세계불교인구는 약 10억가량 된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한편 이들 통계에서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불교인구가 주목된다. 유구한 불교역사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전체인구의 0.1%만이 불교인구로 파악되는 반면 호주는 1989년 인구조사 결과에 비해 1995년도 불교인구가 13만여명으로 집계돼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국제 불교단체

전법·우의 앞장 '세계불심 하나로'

WFB 불기 통일·4대성지 성역화

불교평화연맹 제3세계 인권·여성등 관심

국제불광회 90개국 지부 사회복지사업

호주불교회의 서유럽 포교·청소년 교육

지구촌이 좁아지면서 세계를 무대로 하는 불교단체들의 활동이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 가장 먼저 세계불심을 하나로 모은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는 1950년 말라 레세케라 박사가 스리랑카 콜롬비아에서 설립한 단체로 승가와 재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공통 관심사에 대해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태국에 본부를 둔 W·F·B는 현재 37개국 120개 지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차례의 세계대회를 개최했다. 산하조직으로 WFBY(세계불교청소년우의회)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는 불기(佛紀)를 통일하는 한편 룸비니를 비롯 부처님 4대성지 개발 및 성역화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국제불광회 세계총회(Buddhas Light International Asocciation)는 국제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문화를 전파·교육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1992년 5월 미국 L.A.에서 성운스님(대만, 불광산寺)에 의해 설립됐다.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B·L·I·A에는 중화총회(대만, 타이베이)를 비롯해 세계 90여곳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 1978년 미국 버클리에서 설립된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 회장 알랜 세네크)은 '열린 마음'이란 연맹의 모토를 내걸고 미주, 유럽 그리고 제3세계에서 인권, 독립, 여성, 환경 등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에 본부가 개설되어 있으며 영국 일본 캐나다와 동아시아 등지에 총42개 지부가 설치됐다. 산하기구로 조정연맹(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을 두어 인종 또는 국가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B·P·F는 인터넷에 웹사이트(http://www.igc.apc.org.bpf.)를 개설해 국제참여불교통신망(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태국)과 인권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국제 압력단체의 역할도 수행한다.

○… 호주불교회의(Buddhist Concil of New South Wales)도 비중있는 국제불교기구다. 1970년 호주의 '다민족 정책'에 따라 호주정부가 적극 지원해 설립된 호주불교회의는 초창기에는 호주에 산재한 불교단체의 대외 창구역할을 수행했으나 1980년대 동아시아로부터 호주 이민이 급증하면서 호주불교회의는 성격과 구성에서 큰 변화를 보여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불교도가 뒤섞인 다원화된 국제불교단체로 서유럽을 대표하게 됐다.

현재 서유럽 지역 포교, 동아시아와 유대강화 등의 국외적인 활동과 청소년 교육과 이민세대의 복지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서유럽 광역 네트워크(http://www.zip.com.au/~lyallg/)를 개설해 유럽 불교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이밖에 1966년 창립된 세계승가회는 출가승려들만의 모임으로 본부가 있는 대만에서 3년마다 대회를 갖고있다. 유럽불교도연맹과 몽골에 본부를 둔 공산권불교국가들의 모임 아시아불교평화회의도 있다.

「동의보감」 名品베개 "신침"

건강.장수베개의 神話
신비로운 잣나무베개
허준『동의보감, 원방신침』(神枕)

이 베개가 바로 동의보감中에 약침으로 「풍사(중풍-뇌졸중)가 침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잣나무베개 神枕

인체공학적 방법으로 설계된 자연항균방지 가공베개

KBS-TV 1TV 7시저녁뉴스 보도('96.8.13) 1TV 7시아침뉴스 보도('96.8.9)춘천 2TV「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방영('96.1.29)

추천의 말씀

이 신침을 관찰한 바 동의보감 원방대로 제품화하였으며 「풍사와 모든 질환을 막아준다는 건강베개」로 두통, 불면, 순환기장애, 만성피로, 경건완증후군 등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6. 9. 10.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 신 현 대

• 특허원 제12587호 • 의장원 제2668호
• 실용원 제6594호 • 상 표 제45703호

최고의 선물

正統元方神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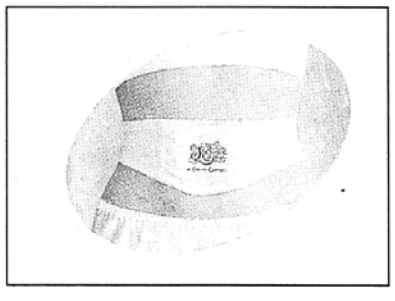
신침(神枕)의 좋은점
* 무병장수의 근원인 바른자세를 원하시는 분
* 혈액순환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
* 만성적 두통에 시달리거나 불면증이 심하신 분
* 수면중 코골이, 무호흡, 뒷목이 뻣뻣하고 당기시는분
* 풍사(風邪)가 염려되거나 목, 어깨, 팔이 아프고 저리시는 분
* 심장이 허약하거나 혈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氣道正常化로 호흡이 원활해져 건강에 좋습니다.
* 이 베개는 頭寒足熱(두한족열)로 심신이 안정되며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실력배양에 지극히 좋습니다.

「신침」이란 천혜의 잣나무로 만든 베개 통속에 32종의 약초를 넣고 베는 절묘한 방법으로 「이 신침을 베면, 풍사(중풍)가 침노하지 못하며, 백일을 사용하면 얼굴빛이 광택이 나고 일년을 사용하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사년을 사용하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귀와 눈이 밝아진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 장수하고 고령에도 머리카락이 희지 않는다」라고 동의보감 내경편에 실려있다

육산기업 신침문의 전화: (02)277-8727~8
주소:서울·중구 을지로5가 273-10 (우성B/D 303호)
男·女엘리트 영업사원모집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